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편집국장 : 조선근

은혜롭게 드려진 47주년 기념 금요집회

지난 9월1일 금요집회 시간 · '창문' · 8명의 장로 중심으로

47주년 기념으로 드려진 지난 9월1일 금요집회는 충현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변화하려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2개월 동안 8명의 장로들이 묵상과 연구, 여러 차례 리허설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된 '창문' 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주제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창문' 에 대해 복음적이고 영적인 각도로 바라보면서 60여분 동안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① 창문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다루었고, ② 성경에서의 창문에 대한 것과 ③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④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것과 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 또한 ⑥ 창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과 ⑦ 그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인 주제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주년을 맞이하는 다짐과 함께 교회의 5대 목표와 ⑧ 결론을 연결시켰다. 또한 이 시간에는 금요집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오 아름다운 주의 성전', 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그리고 '거룩한 성' 을 송축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시간에 있어서 누구보다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성경의 달콤함을 맛본 것은 준비하던 이들이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던 것이다. 이번 금요집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장로들이 더욱더 말씀 중심의 삶과, 은혜의 삶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란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동일한 삶이 확산될 것이다.

제5차 성찬식

오늘 1부에서 5부까지 모든 예배를 통해서

2천년도 제5차 성찬식이 금일 1부에서 5부까지 모든 예배를 통하여 시행된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깊은 헌신으로의 초청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 설립 47주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초대교회를 결코 완전한 교회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았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표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이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되었고,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시와 찬미로 예배하였다. 그들은 불신자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지상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동기와 의지요, 은혜와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며, 특정한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움직여져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세우고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런 교회를 세우려 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듯,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성경의 진리와 성령에 따라 사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필요하며,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성경의 원리대로 일하며, 성령의 지시를 듣는 그의 참된 종들과 백성들이 필요할 뿐이다. 교회는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의 뜻을 순종하면 그것으로 족할 뿐이다. 그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이 땅위에 세워지거나 남아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금년으로 47주년을 맞이하는 충현교회 역시 이러한 성경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데에는 예외가 없다. 지금 충현교회는 복음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나 행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만든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신 일이 한번도 없으시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로 변화될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계획과 눈가림들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들에게서 멀어질 뿐이다. 당신은 죄를 끌어안고 침상을 적시는 다윗의 기도소리를 듣고 있는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울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이 그러한가? 그 참회와 통곡과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함성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할 길이다. 오 주여, 당신의 영이 우리들 안에 계시게 하소서!

주간 성경공부 및 교사 · 찬양대원 양성부 개강

9월3일(주일) 교사양성부를 시작으로

주간성경공부와 교사 · 찬양대원 양성부가 다음과 같이 금주부터 개강된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며, 양성부를 통하여 교사와 찬양대원으로서 섬길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누리시기 바란다.

① 교사 · 찬양대원 양성부
9월 3일, 오늘부터
② 주간성경공부
9월 5일, 화요일부부터

9월의 주요행사

교회설립기념예배/제5차 성찬식	(3일)
정기당회	(6일)
정기제직회	(10일)

9월 기도원 담당

정현민 목사 (16교구 지도)

교회 설립기념 칸타타

오늘 찬양예배 때, 본당에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겔37:27)

임마누엘찬양대는 교회 설립을 기념하여 칸타타를 마련하였다. 작품은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막은 과거의 여호와의 임재하신 상태를 표현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예배하는 자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묘사했다.

② 2막은 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한 현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깨어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

③ 3막은 인자와 같은 이의 묘사로 시작되며, 시편을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의 재림과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한다.

오늘 저녁에 들려지게 되는 칸타타를 통해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다림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기도하자.

목 · 장칼럼

영적 미성숙

류 병 희 (목사, 대학부 지도)

지난 월요일에 월마트에 다녀왔다. 그곳에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있는데 나의 두아들이 다가와 손짓을 하며 저 아줌마를 쳐다보라고 한다. 물건을 고르느라 나와 아내는 정신이 없는데 내 얼굴을 돌려대며 저 아줌마를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줌마가 키가 작아. 저 아줌마 우리와 같이 키가 작다" 라고 소리지르는 것이 아닌가! 나의 손은 어느새 작은 아이의 입술을 막아서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큰아이의 입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들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다. 그 여자는 키가 국민학교 3-4학년의 키 정도밖에 되질 않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딸에 어깨 정도 오는 중년 부인이었다. "왜 저 아줌마는 키가 작아? 먹질 못해서 그런거야?" "아니야, 저 딸이 밥을 다 먹어서 그런거야" 라며 두아들은 쉴사이 없이 떠들어 댔다. 우리는 민망하여 두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면서 나는 생각에 젖어들었다. '미성숙' 이란 단어가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키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가 묵상하게 되었다.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칭찬하실까 고민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어른으로 성장했건만 젖병을 가지고 우유를 빨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젖으로 먹였고 어떤 초대교회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안타깝게 고백한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5:12).

Sermon for next week

Never, Ever

(Hebrews 13:5)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and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because God has said,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Today's message contains a powerful emphasis on the words of Jesus. The Bible reads, "for He Himself has said." The double referencing of "He Himself", instead of "He said" or "God said" or "Jesus said", tells you that the following words are directly from the Lord. It lets you know that this is God's real Word, from His lips to your ears. No interpretation required! This isn't food for thought, but real meat. This is real medicine for your soul! I hope the Holy Spirit touches your heart in such a way as for you to understand the deep meaning of what He Himself has said, "I will never desert you, nor will I ever forsake you" (v. 5). God Himself promises that He will never leave or give-up on you. He will never, ever turn away from you. Do you believe this?

Decadent people, like you and me, frequently say we love Jesus, when in truth we really don't. Many times our thoughts and actions contradict our profession of love. How often do you want something you currently don't have? How often are you afraid or anxious? Think about it. Is the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evident in your daily life? From the time you rise, to the time you lie down, to the time you rise again, is God's love at the forefront or does your selfishness take priority? Trust in the never, ever aspect of God's promise gives you the confidence, hope, and faith needed to live as His child.

When you read in the Old Testament, you find the same promise of God, "Behold,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for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Gn. 28:15). Amen! Do you know that God is love? Do you fully appreciate that God will never forsake you, and never leave you until He has finished what He promised? This particular passage was addressed to Jacob, the deceiver. Even though Jacob was far from perfect, God still gave him His Word. God promised him His presence wherever he would go. He promises to be with you, His child, wherever you will go.

Knowing that God is always with you, and no matter what will always be with you, is the most assuring confidence one can possess. "The Lord is the one who goes ahead of you; He will be with you. He will not fail you or forsake you. Do not fear or be dismayed" (Dt. 31:8). Do you truly believe this? Why worry about anything, especially the future, when God promises to go ahead of you to prepare the way? He never deserts you, so you never have to worry. Please don't worry! Joshua lost Moses, the great leader of God's people. He had to take over and face with certainty the battles and trials that lay ahead for the Israelites to live in the Promised Land. God never forsook him, nor will He ever forsake you.

King David was given the vision for the plans to build God's temple. His son, Solomon, was given the authority to build it. David's last instructions to his son were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act; do not fear nor be dismayed, for the Lord God, my God, is with you. He will not fail you nor forsake you until all the work for the service of the house of the Lord is finished" (1 Ch. 28:20). Do you believe this? The Bible tells us of Solomon's preparation, construction, dedication, and full completion of God's temple (see 2 Ch. 2-7). God keeps His promises. He is always and can never be anything but Faithful and True.

Isaiah also tells us of God's Word to His people,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anxiously look about you,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surely I will help you, Surely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s. 41:10). The Israelites were a small nation with little power, but God assured them of His presence. He promised to strengthen, help, and uphold them because He is their God. He is your God! Isn't that wonderful? You don't need to be apprehensive or concerned about the folly that surrounds you in this world. God is with you. He will empower you to handle everything that comes your way. He will help you to overcome and adversity. He will support and sustain you in every circumstance and situation. God promises never, ever to leave you alone. He will always be with you.

After hearing and believing all these wonderful things about God, what is the key to actualizing them in your life? Hebrews 13:5 gives you the answer, "Make sure that your character i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being content with what you have." Now that you believe, let your inside self let go of money. You've got to love holiness. Paul instructs believers not to be addicted to wine or pugnacious, "but gentle, peaceable, free from the love of money" (1 Tim. 3:3). Materialistic things can pull you away from godly living. Although God uses material things to care for us, like food, shelter, and clothing, they are not important unto themselves. God is what is important. Without God, all the food, shelter, and clothing in the world will not bring you life, but in reality death. So, place God first in all things, and be satisfied. He will provide for all your needs.

Look at Hebrews 13:6, "The Lord is my helper, I will not be afraid. What will man do to Me?" You can confidently proclaim this when you believe in God's promise. Look at Hebrews 13:13, "So, let us go out to Him outside the camp, bearing His reproach." As Christians, we are exhorted to leave false beliefs and join ourselves to Christ. This means that if you love Jesus you will suffer with Him. Sometimes being free from money causes suffering. Inside you will experience peace and joy, but outside you will bear the heartache and shame of being a believer in a non-believing world. If you really believe that God will never, ever be away from you, then you are free from money. Just go each day with Him and don't be afraid, "For here we do not have a lasting city, but we are seeking the city which is to come" (v. 14). Amen!

If you are free from money, take your cross boldly, and you will have eternal life. You will be able to praise God continually, even in the midst of stormy afflictions. You will be able to say, "Through Him then, let us continually offer up a sacrifice of praise to God, that is, the fruit of lips that give thanks to His name" (v. 15). Can you do that without money, with only faith in God? He Himself has promised never, ever to forsake you, and to be your helper if you follow Him. Can you praise God with your lips? You can if you really believe. It's totally up to you how much you believe. Amen.

My dear Choong Hyun brothers and sisters, let's join eternal blessing. God asks you to never, ever worry about this world. He will never, ever forsake you or depart from you. He's going to be with you every moment of your life. Aren't you happy? Please be free from money, from the worldly things. Don't let your inside be a slave to money. Don't be bound to money. Money is a temporary commodity. God's love is an eternal substance that transcends everything, and brings everything to you. Be comfortable in Him. He Himself will never, ever stop loving you.

김 성 관 목사

결코, 결코

(히13:5)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메시지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강한 강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본문의 표현이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가 친히"라는 이중 인용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입술에서 직접 나와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진짜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진짜 치료약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사, 예수께서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기를 그분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적인 사랑의 주님

여러분과 저와 같은 타락한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 모순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유하지 않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기를 갈구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거나 근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여러분의 매일 매일에서 분명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 아침 다시 일어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앞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기심이 여전히 우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있는 "절대로"라는 의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신감과 희망과 믿음을 부여한다는 점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

구약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28:15)."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을 완전히 이해하십니까? 이 특정한 본문은 사기꾼 야곱에게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비록 야곱이 온전함에서 아주 먼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임재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

그 어떤 것이 여러분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신감입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신 31:8)." 여러분은 정말로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시니 믿고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에 대하여, 특히 미래에 대하여 걱정을 하십니까? 그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잃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놓여 있는 전쟁들과 시험들을 떠말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것을 지을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지시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대상28:20)."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 공사 준비, 착공, 그리고 완공 모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대하2-7장 참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며,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사야 또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이스라엘은 힘이 약한 작은 나라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셨기에 그 백성을 강하게 하고 돕고 붙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바보짓들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앞에 오는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여러분을 지지하고 받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참된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듣고 믿고 난 후, 그럼 무엇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실현되게 하는 열쇠일까요? 히브리서 13:5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내면에서 붙잡고 있는 재물에 대한 미련을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함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신자들에게 술이나 구타를 즐기지 말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딤전 3:3). 물질적인 것들은 여러분을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과정에서 의 · 식 · 주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음식과 모든 집, 그리고 입을 것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죽음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든 것 앞에 두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주와 함께 받는 고난

히브리서 13:6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은 이것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13을 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겨짓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와 결합하도록 훈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고난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인 여러분이기에, 안으로는 아마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겠지만, 바깥으로는 마음의 고통과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와 함께 매일 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14절)". 아멘!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

만약 여러분이 돈에서 자유롭다면, 심자가를 담대히 지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비록 폭풍우와 같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15절)." 여러분은 돈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가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그를 따른다면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얼마나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영원함과 참된 기쁨으로의 초대

사랑하는 충현 형제 자매 여러분 함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대하여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삶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제발 돈에서, 이 세상 것들에서 자유로우십시오. 여러분의 속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돈에 묶이지 마십시오. 돈은 일용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져오는 영원한 실체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가 친히 결코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본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종 은 숙 (일본 단기선교팀)

드지 못하는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 때문에 뒤늦게 시작한 신학공부였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셨고 그곳을 통하여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와 우리 일본농아단기선교단이 8박9일의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을까만, 확실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선교활동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일본 농아인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수화를 통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선교훈련을 통하여 안 사실이지만 많은 일반 성도들이 다른 해외에 선교를 가면서 언어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우리도 물론 그러한 걱정 때문에 선교훈련을 통해 우리와 차이가 있는 일본 수화들을 공부하긴 했지만, 실제로 일본의 농아인들과 부딪히면서 언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언어인 수화와 몸짓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준비해간 성극과 수화 찬양, 마임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먼저 모두가 둘러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연을 시작했다. 공개적으로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는 처음에 일본은 800만 신이 있는 나라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한 자유라고는 볼 수 없었다. 성인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었고 그들의 부모가 그랬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옴진리교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다. 당연히 그들의 세계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왕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는 작은 복음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었다. 수화세미나와 문화교류 등을 통하여 참석한 200여명의 많은 일본 농아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복지관에 참여하는 농아인들과 오이타 농아인교회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고 우리가 나누어준 전도지와 일본 교회 초청장을 통해 평소 40명이 모이는 교회에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적거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제시간에 우리 고유의 이쁜 한복을 입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음식들을 나누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할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깜찍한 일본 농아 여학생의 터져버린 울음을 우리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앞으로 새롭게 살겠노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겠노라고…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그 기억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일본의 다른 지역의 목사님이 오이타뿐만 아니라 동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꼭 선교활동을 부탁한다는 말씀에 우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다. 이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거듭된 훈련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선교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 조를 생각이다. 나와 우리 팀원들 뿐 아니라 다른 우리 충현교회 에바다부 청년들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기선교를 위한 드림(Dream)팀 모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마24:14)

현재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중 93%의 선교사가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일하거나 복음이 들어갔을 찌라도 아직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고 오직 7%만이 미복음 전도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한다.

미복음화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미전도 사람들에게 총력을 기울이는 선교를 하고자 지난 3년여 동안 여름과 겨울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이제 우리교회는 좀 더 창의적이고 공격적으로 미전도 선교지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고자 한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젊은이들은 지원을 바란다.

1. 지원자격: 지역단기선교훈련과정(LMTC)를 수료했거나 단기선교 출발 전까지 수료 예정자로 고등학생 이상 (미수료자는 9월2일(토) 개강한 12기 LMTC에 등록하면 됨).
2. 제출서류: 사역계획서(선교지에서의 사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재정계획서(사역에 드는 예산내역서 및 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기도후원자 명단 각1부.
3. 선 교 지 :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제한하되 우리교회 단기선교지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함.
4. 인 원 : 단기선교팀 5명-10명 이하/ 단기 평신도 선교사팀 3명 미만.
5. 기 간 : 단기선교팀은 10일-20일 미만/ 단기 평신도 선교사팀은 6개월-2년 미만.
6. 팀 구 성 : ①남녀의 비율 ②고,대,청 비율 ③외선부 교사 참여 등을 고려하고 ④고등부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에는 담당교사를 포함.
7. 시 기 : 각 팀의 사역계획에 의거하여 정할 수 있음.
8. 제출기한 : 9월30일(토)
9. 각 팀은 선교위원회의 심사 후 가부를 통지해 줌.

*기타문의 사항은 선교위원회(356-8)

춘천소년원 신촌중학교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보슬비가 내리는 월요일 이른아침 두려운 마음과 긴장된 마음으로 춘천에 있는 청소년 수감원 신촌중학교로 향했다. 개강예배로 시작된 우리들의 사역은 영적 전쟁터였다. 아이들은 말씀을 듣는둥 마는둥 하였고, 선생님들과 아직 친해지지 않은 상태라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았다. 분반공부부터 시작된 여름성경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았지만 순서순서마다 기도가 필요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다. 선생님들은 첫날부터 울면서 기도하셨다. 그때는 알 수가 없었다. 왜 우는지, 왜 그렇게 기도가 필요했는지, 막연히 소년원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던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마지막날 알게 되었다.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고, 안타까워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고 계셨기에… 우리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임을 하나님 아래에서는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선생님들의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았다.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은 강팍하였고 닫혀져 있었다. 아이들의 닫힌 마음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한 반면 사역 중간중간에 해야할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은 육체적으로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감사뿐인 그 일들이 왜 그렇게 버거웠는지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던 선생님들을 보면서 많이 깨어지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사역임을 알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셔야 할 수 있는 것임을 주님은 시간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다가와 주셨다.

반별 찬양대회때 다른 반보다 못한 것을 투덜대던 아이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냐며 몇번이나 물어보던 아이들, 목사님의 질문에 큰소리로 열심히 대답하던 아이들, '똑바로 걷고 싶어요' 를 힘차게 찬양하던 아이들, 세례받기 전 울면서 기도하던 아이들, 같이 울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아이들. 순수했던 그 아이들이 생각난다. 이제 나에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하는 책임감이 주어졌다. 그들이 금방 변화되어 새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므로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해 본다.

(최은아 기자)

고등부학생들을 향한 복음화 운동

김 대 웅 (집사, 고등부 전도과장)

현재 난 고등부에서 전도과장과 신임과를 겸하여 봉사하고 있다. 특별히 고등부에서 전도에 관련된 일을 하게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명감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었던 나에게 98년도 낙도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다.

기도하는 중에 휴가기간을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겨 참가신청서를 냈다. 전도 대상자는 거제도 인근 화도교회 주변 주민들이었다. 전도대상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하며, 무슨 말부터 시작할지 복음은 언제 전해야 하며,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가 두려움과 흥분으로 차 있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주민을 처음 만났을 때 초청장을 전달하며 참석해 달라고 말하여 접촉점을 찾았고, 간단한 선물인 사탕을 전달하여 친근감을 유발시켰다. 대화가 시작되면 "지금 잠깐 5-1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나요?" 양해를 구한 후 전도소책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란 질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옴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이곳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전도의 열매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훨씬 잘 나타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과거에 안주하는 성향이 매우 높음을 발견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정보를 곧바로 충현 고등부에 적용하기로 했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VISION 7000이 99년부터 시작되면서 99년 4월 25일을 고등부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여 〈태신자 기도카드〉에 학생 각인이 태신자를 5명 이상 작정하도록 하고 교사는 매일 밤 10시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며 "이들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중보기도를 하며 중간점검을 하기 시작했다. 99년 4월 25일 드디어 207명의 고등학생들이 충현 고등부를 찾아 왔다. 계속해서 99년 가을에도 많은 학생들이 충현교회를 찾았고, 2000년 5월 21일에도 고등부 복음화운동에 137명의 고등학생들이 새롭게 찾아왔다. 물론 그중 15%-20%정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는 영적인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각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서 부탁하신 분명한 메시지이다. 기회가 오면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중보 기도로, 물질로, 직접 참여함으로 자기의 영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해 가길 바란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이 호 은 (고등부 2년)

처음 고등학교를 배정받던 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학교로 혼자 배정 받은 것이다.

'왜 내가 이 학교를 다니게 된 거지…'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우리 학교에 '둘로스'라는 모임이 생겼다. 충현교회 다니는 이들이 모여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얼굴도 모르면서 한 학교를 다녔던 고등부인들이 9명이나 되었다.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줄만 알았던 학교 안에서 '기도한다'는 명목하에 모이니까, 두근거리기까지 하였다. 장소가 없어 중앙현관에서, 말씀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작게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 학교를 위해 기도한다. 점심 먹고 사라지는 나를, 호기심으로 따라와 봤던 믿지 않는 친구가 이제는 같이 손잡고 학교를 위해 기도한다. 지금에서야 알았다. 내가 이 학교로 배정받은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이다.

△왼쪽에서 첫번째가 이호은 자매

우리 고등부 안에는 현재 22개의 학교에서 둘로스 모임을 갖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 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 안에서 '둘로스(주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모인다.

고등학생이 하루중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우리는 너무 세상친구들과 똑같이 살아 왔다. '둘로스' 모임이 있어도 인원수가 적다고, 장소가 없다며 모이기를 게을리하곤 했다. 그러나 학교붕괴다, 교실이 무너진다다며 이 사회가 술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다. 여지껏 학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의 영적인 면을 책임질 주님의 종들로서 기도하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학교의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을 놓고 기도한다.

앞으로는, 학교 안의 다른 기독교 모임과 연계하여 더 크고 강한 기도모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학교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둘로스'가 쓰임 받아야 할 것이다.

서현역으로의 노방전도

김 현 경 (고등부)

8월 9일,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막 끝나고 우리 문서선교부와 선교부는 분당 서현역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다. 수련회 준비로 바빴던 우리는 노방전도를 위한 기도도 사실은 많이 드리지 못한 상태였고, 연습도 몇 번 못하였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었다.

솔직히 처음에 분당으로 노방전도를 나간다고 했을 때, 꼭 우리 부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을 할까하는 생각도 했었다. 수련회 기간동안 단체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나는 더욱더 그런 생각이 간절했다.

그런데 막상 서현역에 도착해서 시작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래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이 반성을 하고 정말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음악을 연주하고 또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선 전기가 필요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전기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우린 모두 둘러앉아 무릎꿇고 기도 드렸다. 그러자 곧 전기를 구할 수 있었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전도했다.

연습을 많이 못해서 잘하지는 못했지만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이 기뻤고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생각이 짧아 그걸 빨리 느끼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모든 게 끝나갈 때쯤, 땀으로 젖어 있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선 소나기를 내려주었다.

그날은 내게 있어 나무나 은혜로운 하루였고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만평

글·그림/김 범 헌

일터에서

직업과 나

양 기 수 (5교구, 고등부 교사)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 : 23)

범죄한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내어보냄을 받아야 했던 일이 토지를 갈게 하심이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로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문해 볼 때가 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진다. 왜 나는 더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했는지 말이다.

나의 직업은 측량을 통하여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지적측량사' 이다. 집을 짓거나 토지를 사고 팔 때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측량하여 구분해 주는 직업이다.

어린 나이에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28년동안 한 길을 걸어왔다. 지내놓고 보니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불평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 생활과 환경과 직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게 되었다.

내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내게 이러한 직업과 직장을 주신 것은 계획이 있으셨는데, 잘 알지 못하는 내가 불평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내 직업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직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시작부터 관계해서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토지법을 만들어 땅을 관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여러 곳에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볼 때 측량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창세기 47 : 26)

측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인간의 욕심과 죄성을 확인하게 된다. 측량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경계를 알려 주었을 때, 남의 땅을 더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남의 땅을 더 사용했구나 하고 미안해 하기보다는 내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측량사를 의심하며, 여태껏 사이좋게 지냈던 이웃과도 땅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좋은 말로 이해시키기에 한없는 부족을 느끼곤 한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오늘도 저와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해 주셔서, 정직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저의 행동과 언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 주시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서로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직과 성실로 공평과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땅을 헤아리는 직업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땅을 측량하는 것처럼 깊으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날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창세기 47 : 26)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6교구 양희옥성도*님은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어려움중에 계십니다.

11교구 임성진어린이(8세)는 암수술후 뇌종양이 발견되어 재수술할 예정이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찬송

당신은 평생을 어부로 사시겠습니까?

양 현 구 (고등부 교사)

'바닷가의 어부들은 여가를 즐기는 낚시꾼과는 다릅니다. 어부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 비바람이 쳐도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집니다. 또한 고기잡이가 끝난 후 그가 타고 나갔던 배와 그물을 항상 손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보통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선 그냥 저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배와 찬양이라는 그물입니다. 그중에서도 찬양은 정말로 놀라운 도구였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그물은 보통 그물과는 틀렸습니다. 보통 그물은 고기들을 결박하고 가두어 버리지만 찬양이라는 그물은 영혼들을 결박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안에서 위로를 받고 상한 마음과 심령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아프신 환자분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지 못했지만 찬양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비췄던 수심들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그 얼굴을 덮는 모습…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던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선 그러한 역사들을 저와 같은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어장에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들을 준비하시며 저와 같은 어부로 평생 사시겠습니까?

인도받은자의 편지

아주머니 보세요

아주머니가 우리집에 온 지 벌써 1년2개월이 넘었군요.

그동안 어머니 돌보시랴 살림하시랴 힘드신데 나까지 아파서 고생하는 것 잘 압니다. 처음에는 약도 잘 챙겨주시고 잔소리도 많이 하셨지요. 야속할 때도 많았지만 아주머니가 없으면 안되겠기에 많이 참았지요. 그런데 아주머니 진심을 알고 나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가서 지난 27일자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충헌교회 세례교인으로 든든하고 잘 믿어보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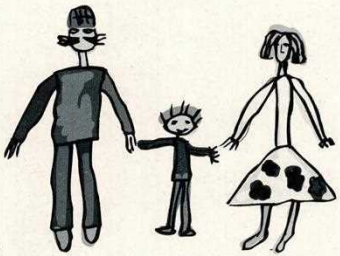
이제는 저를 세뇌교육(?)까지 시키시네요.

식사시간에 돌아가며 기도하자고 하시고, 저는 아직 그런거는 잘 못해요. 안그러셔도 때가 되면 기도도 잘하게 되겠지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교구, 권영국)

매일매일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송 혜 경 (영아부 교사)



엄마 품에 안겨 "1개월된 ○○○입니다." 하며 새 친구로 등록한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 다니고 앉아만 있던 아기가 걸어다닌다

'기분좋다' 하며 뛰어다니는 우리 아기들, 말도 안되는 언어로 자신을 표현할 때, "그래, 그래" 받아주며 이해하는 엄마, 아빠, 선생님들. 매주일 예배시간에 들리는 소리, "아멘, 아멘" 아기들이 자신있게 화답한다.

영아부 모두는 감사하면서 웃지 않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이다. 요즈음 찬양할 때 음정, 박자, 가사 전달을 확실히 하는 아기들이 많이 있다. 그 아기들의 엄마 말씀, "선생님! 얘는 이다음에 성악가로 하나님께 드려질거에요." "그래요 꼭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해요."

두달전 르완다로 떠난 허주영이는 탯속에서부터 영아부를 출석했다. 주영이가 '쑥쑥' 자라는 것을 보다가 전쟁으로 황폐화된 곳 르완다로 떠난다는 소식에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주영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꺼야"라는 믿음에 감사하며 주영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2주전에는 학부모 특강으로 '영적인 나눔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로 전도사님 강의와 토의하며 발표시간에 한 가정은 매일 가정예배로 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서 상대방의 근심이 무엇이며 무슨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다며 매일 가정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아부는 가정예배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 영아부 전체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나를 바꾼 한마디

"너는 내것이라"

김 민 철 (대학부)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씩 잊혀지고, 저물어가는 것이 인간의 기억이라지만, 그 기억 속에서 항상 나를 새롭게 이끌어 주었던 말씀이 있다.

내가 군에 입대하려 했던 당시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추운 강원도 땅으로 보내시며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너는 두려워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사 43:1)."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건만 '너는 내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알려주셨던 이 말씀은 언제고 다시 읽을 때면 그때의 기억과 함께 새로운 나를 다짐하곤 했다.

'너는 내것이라' 어찌보면 별것, 별말 아닌듯한 단순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시시각각 변화해 가는 사회의 조류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좋고 나쁨을 제대로 구별할 수도 구별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워져만 가는 가치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한 젊은 크리스천에게는 너무도 커다란 자기 정체성의 발견이었다.

나의 소속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내 옆에 언제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지만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고 다니기가 일쑤였다. 즉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일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 누가 뭐라해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너는 내것이라"
나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남아 있다.

교회설립 47주년을 축하하며

구월의 탄생

김 운 섭 (집사, 초등부 교사)

한천년 묵상하며
구혈을 답아본다
미래를 설계하며
초가삼간 지다보니
동화속 전설같은 꿈
꽃대궁도 지였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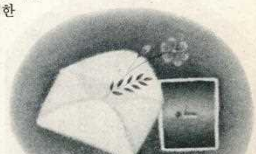
돌다리 쇠다리도
두드리던 지난 날들
세상이 으름장놓고
칼날위에 서라지만
핵한 길 초록빛 길따라
놉잡은 저 십자가

박꽃은 웃음모태
고개숙인 허영 낫칼
백발이 이출 액사
은빛으로 빛이 난다
내 나이 마흔일곱살
세계 속에 우뚝 선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예수님께 보낸 편지

언뜻 스쳐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언젠가 급히 일을 마치느라 성경책을 미처 가지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급한 숨을 몰아 쉬고 몸과 맘을 가다듬고 있다가 헌금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경책이 없고 그 속에 늘 끼워두는 주일헌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내 손안에 빳빳한 1,000원짜리 신권이 한 장 주어졌다. 놀라서 옆을 보니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권집사가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때 그 감정을 뭐라 표현할 길 없어 "고마워, 10배로 갚을께!"라고 얼떨결에 말하고 말았다.

문제는 다음 주일날이었다. 내가 한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역시 10,000짜리 신권을 준비해간 나는 점짓 그 집사님 옆에 앉아 헌금시간에 맞춰 재빨리 그 손에 쥐어 주었다. 그 집사님은 예상치 못했던지라 공을 주고 받듯 하다가 그만 헌금바구니가 지나갔고 해서 그 주머니에 살짝 넣어주었다.

더 문제는 그 다음주일이었다. 이 집사님이 날더러 1,000원만 꿔달라고 해서 급히 꺼내주자 내게 "자, 됐지?"하며 10,000원을 주고 달아나는게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예수님께 기발하고도 멋진 편지를 보내 드렸다. 실은 비밀로 간직하려던 건데 그 집사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천국의 행위책에 기록해 주실사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예수님께서 내게 보내신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라고나 할까?

(김석진 기자)

교회소식 / 새가족 소개

알 림

1. 전도위원회 봉사자 모집
만족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전도위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인원 : 1명
· 자격 : PC활용이 가능하고 행정경험이 있는 세례교인
· 기간 : 9월중
· 연락처 : 전도위원회 (구내전화337)
2. 방송실 한글 자막 통역 봉사자(찬양예배) 구함
충현교회 방송실에서 성실히 봉사할 한글자막통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충현교회 세례교인
문의 : 552-8200(교환:224), 562-4872
3. 에바다부 수화교실 접수
· 개강 : 9월3일(주일)
· 강좌 : 주일- 초 · 중 · 고급 수요일- 초급
· 신청 : 에바다부 교사실

모 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 일시 : 4일(월)새벽기도회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 일시 : 5일(화) 새벽기도회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3. 교정전도위원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메추라기홀
4. 경찰전도회 월례회
· 일시 : 10일(다음주일) 15:00
· 장소 : 메추라기홀
5. 이 · 미용전도회 월례회
· 일시 : 7일(목) 11:00
· 장소 : 영아부실
6. 남녀전도회 연합회장 · 부회장 월례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칼빈홀
7. 권사 제1,2지회 월례회
· 일시 : 6일(수)수요1부예배후
· 장소 : 갈릴리홀
8. 집사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30
· 장소 : 교육관 212호

남녀 전도회

1. 한나 11지회 월례회
· 일시 : 10일(다음주일) 교구모임후
· 장소 : 베다니홀
2. 에스더 3지회 월례회
· 일시 : 8일(금) 11:00
· 장소 : 칼빈홀
3. 루디아 3지회 월례회
· 일시 : 8일(금) 11:00
· 장소 : 영아부실
4. 마리아 3지회 월례회
· 일시 : 8일(금) 11:00
· 장소 : 교육관 109호

별 세

1. 김창용 타교집사
(오경은 성도의 남편, 1교구 한서3구역) / 8월24일 별세, 8월26일 장례
2. 김종규 성도
(김희옥 성도의 부친, 16교구 수원2구역) / 8월25일 별세, 8월27일 장례

결 혼

1. 이우희 군(이상지 집사, 심재헌 집사의 아들, 16교구)과 홍미경 양(홍금철 집사, 김연순 집사의 딸, 13교구) / 5일(화) 12:00 갈릴리홀
2. 이창무 군(이수남 타교장로, 임부자 집사의 아들, 3교구)과 박성숙 양(박완모씨, 유윤남씨의 딸) / 5일(화) 14:00 갈릴리홀

주소 변경

1. 이실호 안수집사, 오정남 집사
송파구 잠실1동 19번지 APT 22동 502호. ☎412-3275

교정전도회

청송 제1감호소 특별전도집회
9월5일(화) 오전6시30분
본당 앞 출발

5교구 태신자 초청전도집회

사랑하는 5교구 지체 여러분! 태신자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시고 연락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한가족이 되실 분들을 이번 기회에 꼭 모시고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9월30일(토) 17:00
· 장 소 : 선교관 메추라기홀
· 프로그램 : 만찬, 새가족 환영, 영화상영, 목관 앙상블 연주, 교제의 시간

동서울노회 제58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목사고시청원(강도사로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② 강도사 인허 및 고시 청원 ③ 전도사 고시 청원
④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⑤ 신학 계속 추천 청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 2000년 9월 10일(주일)까지
• 접수 및 문의 : 교회 사무국 총무과(☎ 563-2339)

사무국 직원 모집

충현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근무직 및 자격
① 사무직 - 25세 미만의 여자 세례교인, 30세 미만의 남자 세례교인
② 영양사 - 40세 미만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로 유경험자
③ 전산직 - 35세 전후의 세례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다년간 업무경험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④ 기사직 - 50세 전후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운전 1종 면허 소지자 (기도원 근무)
2. 제출서류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자격증 사본 ④ 자기소개서
⑤타 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3.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교환 402번)

충현중보의창

① 김성관 담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주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게하소서.
⑥ 충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하소서.

교회오시는길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67	이철희	7	베드로		772	박지영	19	청년1	이지은(5)
768	정정화	8	베드로		773	김희찬	19	대학부	
769	박규선	9	소망부	오영선(2)	774	조세연	19	청년1부	
770	최수경	11	루디아		775	조세형	19	청년1부	
771	유세원	19	고등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임장수 · 최영옥' 부부를 소개합니다

아내되시는 최영옥 성도님이 95년도에 새가족부에 와서 성경쓰기를 하시다가 수료후 장년2부에 가셔서는 읽기를 하셨답니다. 어느날 자신은 예수님을 늦게 믿었으니 쓰는 것이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서 계속 쓰셨답니다. 올7월에 남편되시는 임장수 성도께서 교회나오시고 새가족부에 다시 같이 참여하시면서 지난8월20일 성경쓰기대회에서 66권 쓰신 것을 제출하게 되시어 많은 교사들과 새가족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도 기회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셔서 임장수 성도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새가족부 집회에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정우' 성도를 소개합니다

일생을 해로하리라 여겼던 부군을 사별하고 마음이 괴롭고 쓸쓸할 때 친구인 김성순 집사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시고, 새가족부 과정을 16주째 맞고 계신 이정우 성도님은 열심히 믿으려 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열심을 내어도 마음의 많은 의문들 때문에 고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약속(요1:12, 계3:20)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성도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조선근 기획위원	김은호 교구위원장	노광헌 당회 서기
오진국 탁아부장	이병학 제3교육위원장	윤인현 선교위원	최대원 제2교육위원장
엄필성 장년3부장	강모용 새가족부장	오정현 예배위원장	이 훈 찬양위원장
남선우 제1교육위원장	서동석 당회부서기	정운석 제8교구장	김영길 제16교구장
문홍구 봉사위원	조인제 아멘찬양대장	김종구 유아부장	최무길 장년1부장
김천채 할렐루야찬양대장	이창호 장년2부장	차신득 감사위원장	김재명 행정위원장
박영식 전도위원장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제5교구장	윤성철 기획위원장
이하영 제17교구장	박인건 제13교구장	김인관 제6교구장	이병옥 제3교구장
안종욱 재정위원	최명환 제7교구장	임무천 고등부장	이종섭 가브리엘찬양대장
최기홍 제11교구장	이갑재 제15교구장	진홍용 에바다부장	전홍렬 제9교구장
이정우 임마누엘찬양대장	김단용 중등1부장	황영일 제4교구장	손 철 영어교육부장
한송규 중등2부장	김영수 선교위원	정홍식 대학부장	김환기 신혼가정부장
원응철 중등3부장	이형수 청년1부장	안동현 소년부장	황의만 유년부장
김구형 유치부장	최성현		

■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전형준 이승수 정갑신
정현민 조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 교육목사 정준희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 선교사 이준교(이집트) 안석렬(수리남) 정은희(수단)
■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한승일
■ 여전도사
정연희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 교정전도사 박양덕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English Service	9:00 a. m.	갈릴리홀(Galilee Hall)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